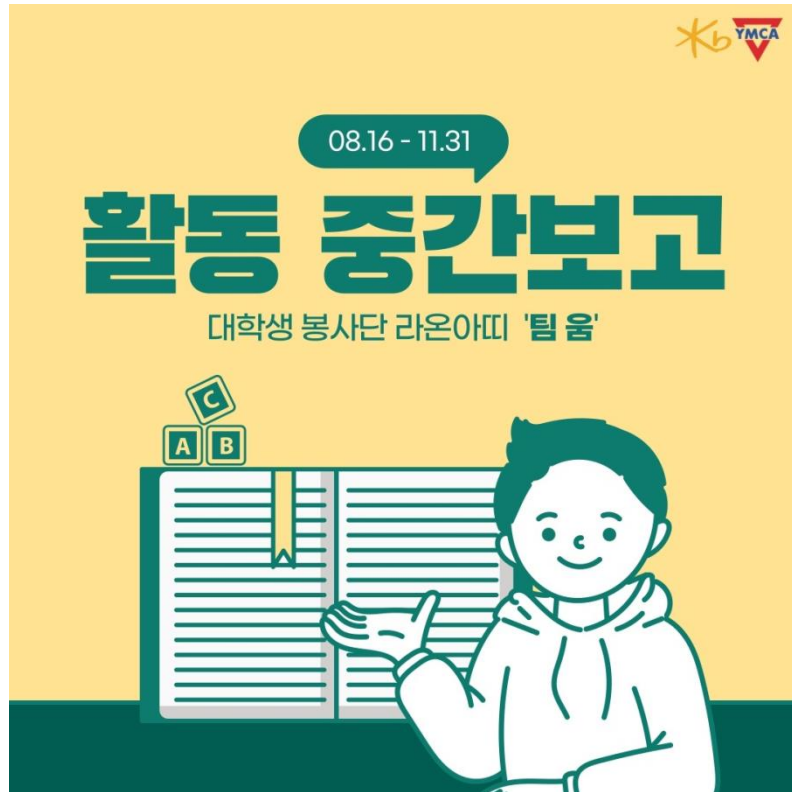


# 라운아띠 Team UM 12월 보고



# # 01 중간보고카드 뉴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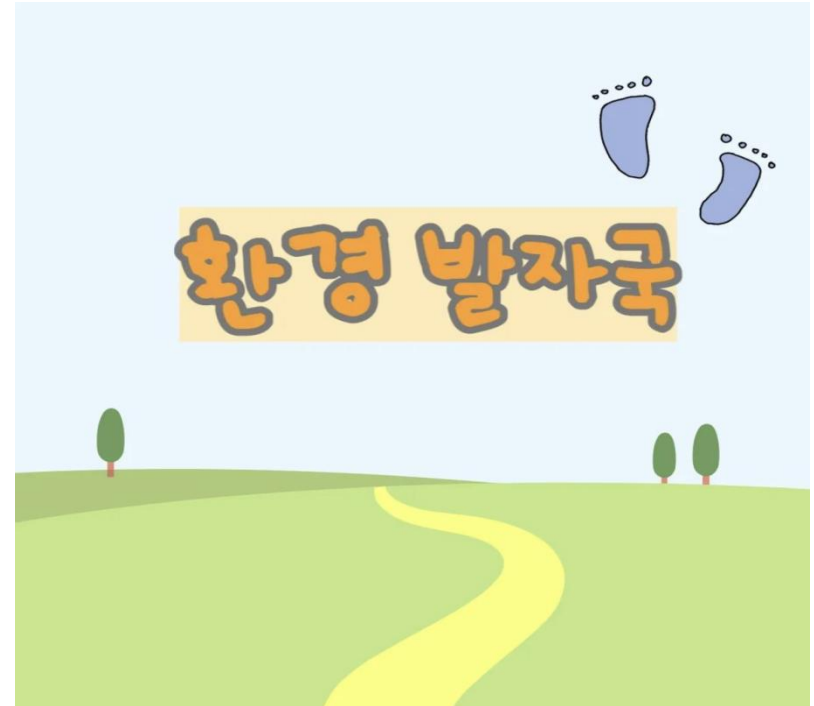


4개월 동안 팀움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중간보고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

# # 02 움툰(움의 인스타툰) 연재



움툰 5화 플로깅편



움툰 6화 환경 발자국편

# # 03 SNS 이벤트 진행



#1 **음툰 퀴즈 이벤트**  
이벤트 참여 기간 22.12.28.

STEP 01. 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STEP 02. 12월 28일 음 인스타그램 스토리 확인  
STEP 03. 퀴즈 풀기 (객관식, 선지 선택!)  
참여자 중 15명에게 기프티콘 증정!

내 스토리 1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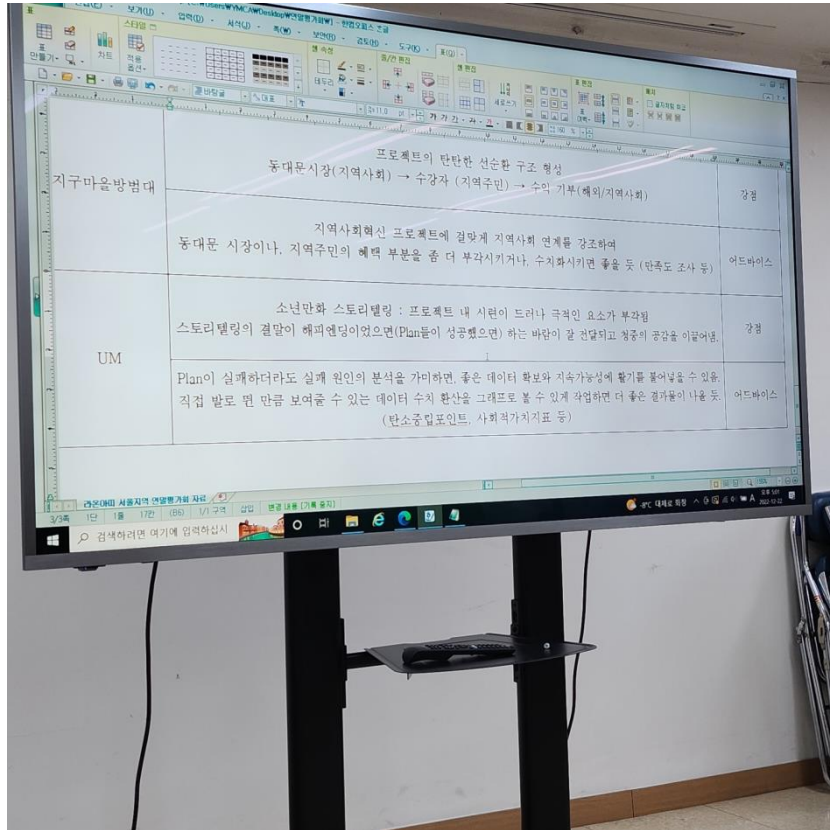
Q. 연두색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이메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redacted]는 꺼지지 않고 운영돼. 그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redacted]도 계속 같이 돌아가게 되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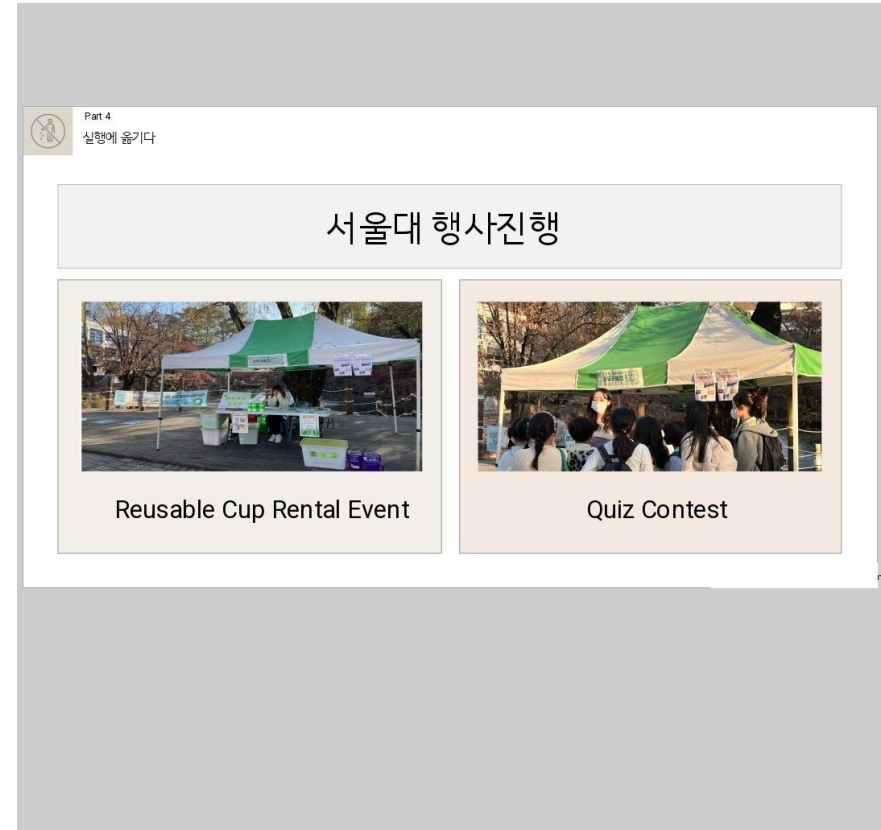
UM 퀴즈 시작

그동안 업로드했던 음툰에서  
퀴즈를 출제하여 참여해주신  
정답자 열다섯 분께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 # 04 연말평가회



팀별 강점 사례 나눔과 사무국 피드백 진행



중간보고 형식으로 시행했던 활동들 10분 발표

# # 05 토크콘서트 기획안 작성 및 공동회의 진행

## ▶ 제목 / 주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 에코 스타트업
- 환경 실천
- 작은 변화, 큰 변화

## ▶ 행사 내용

1. 북 콘서트
  - : 책을 둘러싸고 나누는 작가와 관객의 대화. 콘텐트의 깊이를 더함. 해당 작가의 팬 콘서트에 유치 가능.
2. 에코 스타트업
  - : 에코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초청. 우리도 관객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 사업 관련 실질적 조언을 줄 수 있음.
3. 환경 인식 개선 & 환경 실천 장려
  - :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환경보호에 관한 강연. SDGs와 '환경보호'에 충실.

## ▶ 강연자 후보 / 컨택 방법

1. 북 콘서트
  - 박경화 작가님, 김지혜 작가님, 알맹상점 이주는 작가님
2. 에코 스타트업
  - 뽀득 박노준 대표, 잇그린 이준형 대표, 더 퍼커 송경호&홍지선 대표
3. 환경 인식 개선 & 환경 실천 장려
  - 알맹상점 이주는 작가님, 월경교육기 심윤미 대표, 쓰레기박사 홍수열 소장님,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대표님, 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

+ 최재천 교수님 (섬의 어려움 등..)

- 컨택방법 : 모든 방법 총동원 → 메일, 페이스북 등등

## ▶ 홍보 계획

1. SNS
  - : 에브리타임, 캠퍼스픽, 움&지구마을방범대 인스타
2. 사이트
  - : YMCA, 여성환경연대,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환경 관련 사이트에 부탁
3. 주변 지인들 홍보





# 활동 평가 및 소감

**김서진** 12월 한 달은 4개월(8, 9, 10, 11월)동안 진행했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 및 1월에 진행할 환경 토크 콘서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움툰은 팀 움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알리고 팀을 홍보하고자 냈던 아이디어다. 라온아띠 대외활동이 끝나더라도 움툰은 계속 연재될 예정이다. 그동안 업로드했던 움툰에서 퀴즈를 출제하여 정답자 열다섯 분께 비건 립밤을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더불어 라온아띠 마지막 활동으로 팀 지구마을방법대와 함께 환경 토크콘서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콘서트 타임라인부터 강연자는 어느 분으로 섭외할지, 어떤 부스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등을 고민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기획안 또한 작성하였다.

라온아띠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둔 지금, 라온아띠는 나의 대학 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활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 팀원들과 일회용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그레이스 카페 사업, 서울대 프로젝트, 그리고 1월에 진행할 환경 토크 콘서트까지 여러 큰 활동들을 진행해보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기획안을 작성하여 각자 의견을 어필하는 과정을 통해 팀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특정 일을 시작할 때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잘 몰랐다면 지금은 해당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믿어주는 팀원들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남은 한 달, 팀원들과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여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

# 활동 평가 및 소감

## 박수현

12월은 활동 중간보고를 통해 팀 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른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팀 움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다른 팀의 시행착오를 통해 유의미한 교훈과 팁들을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12월에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끝맺음을 맺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열띤 회의 끝에 팀 지구마을방법대와 함께 '환경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리유저블 컵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인식'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면, 토크콘서트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스스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변수들을 미리 걱정하고, 시작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곤 했었는데,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다. 1월에도 토크 콘서트라는 큰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치로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활동 평가 및 소감

**소감** 12월에는 인스타 중간보고 카드뉴스를 만들고 움툰을 활용한 인스타 이벤트를 작성하며 토크콘서트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중간보고 카드뉴스를 보며 지난 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온 팀 움이 대견했으며 앞으로 남은 정리보고서와 토크콘서트 또한 최선을 다해 후회 남지 않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카페 그레이스 활동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 속에서 사업 과정 겪었던 일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12월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다. 가장 인성적인 활동은 캄보디아와의 해외교류이다. 지하철역을 다닐 때마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포스터를 볼 수 있었고 기사에서는 항상 장애인으로 인한 지하철 연착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장애인 또한 시민이며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육체적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물론 힘들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시위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민 전체가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하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캄보디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알지 못했다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활동 평가 및 소감

## 이유림

계획했던 일정들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정되었던 두 가지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좋아'!

토크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12월은 영향력을 고민하는 달이었다. 컵 대여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그동안 몸으로 뛰며 느낀 지점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 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한 달간 회의를 거듭하며 얻은 중요한 결론은 '우린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란 점이다. 단순히 6개월간 컵을 대여해주고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만의 독립적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환경문제의 해답에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 경험을 씨앗으로 삼아 우린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라운아띠'는 끝나가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 활동 평가 및 소감

**황성윤** 12월은 지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리유저블 컵 대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담은 활동 보고 카드뉴스를 만들었으며, 해당 브이로그 역시 팀원들이 제작 중에 있다. 10월부터 해온 인스타툰도 꾸준히 연재 중이다. 나는 콘티 담당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인스타툰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움 팀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있다. 움 팀 홍보 목적으로 인스타툰 퀴즈 이벤트를 1회 진행하였고 비건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하였는데, 이 역시 환경을 생각하여 하나하나 담은 요소들이라 뿌듯함이 컸다. 인스타툰은 라온아띠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에도 틈틈이 연재할 계획이다.

기존에 계획했던 정동극장 세실, 명덕외고 세계문화축제 이벤트는 기간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12월 말부터 1월 중 진행될 토크콘서트를 위해 라온아띠 서울 지역 다른 팀인 '지구마을방법대'와 공동 회의를 열고 기획안을 작성하였다. 두 팀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만큼 꽤 큰 규모의 의미있는 토크콘서트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1월 중 토크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는, 중간 보고회에서 조언해주셨듯 '움'만의 성장 과정을 담은 스토리텔링으로서 완결된 보고서 자료를 작성하고자 한다.

라온아띠 단원으로서 보낸 반 년 정도가 마무리되고 있다. 수월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서 스스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기획, 홍보, 집행, 계획 등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일을 두루두루 겪어본 덕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극복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일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 도와가며 팀원들끼리 의지한 덕에 무탈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보람찬 12월의 마무리이며, 기대되는 1월의 시작이다.